

지역 매아리

김제시 수의사협회 간담회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제시 수의사협회 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제시 수의사협회 회원과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 시정을 홍보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발병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의 방역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제=곽노태 기자

희망2019나눔 유공자 시상식서

백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증환 위원 전북도지사상 수상 '영예'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70일간 '희망2019나눔캠페인' 활동을 통해 7억 3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하였고 이 중 일반성금 2억3천만원의 45%의 금액인 1억3000만원을 19개 읍면동으로 배분하여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긴급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김제시는 모금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복지 기획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19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이 지난 2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제시 백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증환 위원이 전라북도지사상을 수상하고 송립타울 유경종 대표와 교동동행정복지센터 백일홍 주무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상 수상 영예를 안았다.

유증환 위원은 백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기동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노후 전선교체, 수도 교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22회에 걸친 짜장면 봉사활동 등 자신의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하여 복지제감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했다.

송립타울 유경종 대표는 1976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백미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2011년부터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8천만원 상당의 백미 등 현물을 약 4,000세대에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백일홍 주무관은 교동동 맞춤형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희망2019나눔캠페인을 적극 홍보하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평소에도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더 나은 삶 살수 있도록”

완주군, 일자리 창출 전문가 포럼 개최
일자리 재단, 복지지원 정책등 다양한 의견 제시

완주군이 민선7기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28일 완주군은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교수, 전문가 및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한국지역고용연구소 노대우 연구원의 '일자리 창출 우수 자치단체 분석을 통한 완주군 일자리 창출 정책방안' 발제와 고용부, 교수, 의원, 근로자, 기업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부분별 추진 방향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자리 기금 및 일자

리 재단 ▲중소기업 연금제도 ▲청년 기본소득 ▲근로여건 개선 ▲청년창업 자생력 강화 ▲초기기업 스케일업 ▲중소기업 인식개선 ▲우수근로자 육성지원 ▲복지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유익시 완주군의회의원은 군(郡)단위 기초자치체로는 최초로 일자리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장기비전을 제안해, 향후 일자리 분야에 있어 완주군과 의회간 정책 공조의 기대감을 높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늘 토론회가 4차 산업시대 향후 100년 완주군의 신 성장 동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기업과 근로

자,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촘촘한 일자리 정책 설계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완주'를 만들어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민선6기인 지난 2014년부터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정책을 군정 3대 핵심 정책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모바일 완주 실현을 위해 기업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형 일자리,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형 일자리, 재정일지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형 일지리의 3유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고, 당면한 지역 산업 위기를 개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민선7기 완주군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용역'을 추진 중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출퇴근 상습정체구간 교차로 신설 해야”

김제시, 국도21호선-지방도735호선 설치 건의

김제시는 국도21호선 전주-군산간 도로와 지방도735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설치를 전주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에서 김제 백구나 용지를 진출입하는 차량들 대부분이 국도 21호선 학동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출퇴근시간에는 상습정체구간으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백구면 부용리, 월봉리 및 용지면 봉의리, 구암리 등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진입교차로가 없어 그동안 약 3km를 우회하며 학동교차로를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해왔다. 더욱이 최근 조성된 백구제1특장차 전문단지에는 21개기업이 성업중으

로 약 400여명근무하고 있으며 특장차차기인증센터 개소로 차량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백구제2특장차 전문단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대부품단지 등이 준공되면 차량통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교차로 신설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건의한 연결교차로가 개설되면 김제 백구제1특장차단지와 조성 중인 제2특장차단지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사업대상지들을 오가는 통행차량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접근성이 증대되고 교차로 주변에 거주하는 백구면 및 용지면 주민 약 2천여명이 수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도21호선 전주-군산간 도로와 지방도735호선을 연결하는 교차로

완주군 용진읍 도시재생 최종 선정

완주군 용진읍이 '바람, 발길' 공동체가 머무는 용진읍'으로 거듭난다. 28일 완주군은 2019년 국도부가 주관하는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3억2000만원(국비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주민이 직접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다.

완주군은 용진읍의 골목길에 아름다운 꽃나무를 가꾸고, 보행로를 만들어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한다.

특히, 로컬푸드 1번지 용진의 특화자산을 활용해 마을회관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작업할 수 있는 로컬푸드 공방 등을 설치해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마을 뒷밭을 경작하고 마을주민, 귀농귀촌인, 지역상이이 함께 참여하는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용진읍 이장협의회는 '사랑의 벼 재배'를 위해 용진읍 구역리 143번지 유휴지 8394㎡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

‘용진읍에 4년째 심어진 사랑의 벼’

완주군 이장협의회, 이웃 나눔 위한 모내기 시작

완주군에 4년째 사랑의 모가 심어졌다. 28일 용진읍 이장협의회(회장 정명석)는 '사랑의 벼 재배'를 위해 용진읍 구역리 143번지 유휴지 8394㎡에 모내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모내기는 용진읍에서 11년째 익명으로 쌀을 기부하고 있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에 감동받은 용진읍 이장협의회가 나눔에 동참하고자 시작했다. 용진읍 이장협의회는 농사재능을 살려 유휴지를 개발해 지난 2016년부터 사랑의 벼를 재배해 오고 있다.

용진읍 이장단은 정성스레 농사를 지어 생산된 수확어 포대의 쌀을 이웃에 기부하고 있다.

이날 모내기 작업에는 정명석 용진읍이장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 김현봉 사랑의 벼 재배 추진위진위원장, 마을별 이장을 비롯한 박성일 완주군수, 소완삼, 이인숙, 정재호 용진읍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벼 수확을 위해 이장단은 지난 4월부터 논갈이 및 잡풀

제거 등 사전작업을 착수했다. 이장단은 모내기를 시작으로 수확 및 도정작업을 거쳐 생산된 쌀을 연말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벼 3000kg을 수확해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에 전달했다.

김현봉 사랑의 벼 재배 추진위원장장은 “농번기에도 불구하고 봉사정신 하나로 적극 동참해주신 이장, 부녀회장께 감사인사 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쌀로 결실을 맺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명석 협의회장은 “올해 많은 수확을 올려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벼 생육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모내기에 동참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오늘 흘린 땀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관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현대차,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수소전기차 넥쏘 공급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가 동남아 시장에 첫발을 내딛었다.

28일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동부 사라왁주(州) 쿠칭에서 열린 동남아시아의 첫 수소충전소 개소식에서 사라왁주의 에너지 공기업 '사라왁 에너지(Sarawak Energy Berhad)'에 넥쏘 2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용석 현대자동차 아태지역판매실장(상무), 아방 조하리 옹(Abang Johari Openg) 사라왁주 주지사, 사르비니 수하일리(Sharbini Suhaili) 사라왁 에너지 CEO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 전력을 공

급하는 사라왁 에너지는 교통·수송 분야 혁신을 위해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설립한 동남아시아 첫 수소충전소의 시범 운행 차량으로 글로벌 수소전기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차 넥쏘를 선정했다.

사르비니 수하일리 사라왁 에너지 CEO는 “높은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과 안전성, 긴 주행거리를 갖춘 넥쏘가 프로젝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시범 운행 차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넥쏘는 사라왁주의 다양한 공공 부문에서 시범 운행 차량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Advertisement for 'Imshil Cheese' (임실치즈) featuring various cheese products and a background image of a cheese factory building.